

창의적 미술 수업을 위한 창의적 미술교사의 현장연구방법

미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법 (art-based action research)

김 미 남*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미술교사의 교실연구
2. 미술교사의 미술중심 연구

III. 창의적인 미술교사를 위한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 사례

1. 프로젝트 개발 배경
2. 프로젝트 진행과정
 - 1) 미술교육 관련 이슈와 이론 학습
 - 2) 현직 미술교사의 수업 참여관찰 사전준비
 - (1) 참여 관찰할 미술수업에 대한 조사
 - (2) 관찰 주제 선택
 - (3) 관찰 주제에 대한 소그룹 토론
 - (4) 관찰 주제에 대한 이론 조사

- 3) 수업 참여 및 관찰
- 4) 관찰 결과 발표 및 의미 해석
- 5) 주제 선정 및 1차 스케치
- 6) 기술적 조언 및 2차 스케치
- 7) 교실연구 결과물로서 미술작품 제작
- 8) 전시회

IV. 연구 결과 및 결론

- ※ 참고문헌
- ※ ABSTRACT

주제어(key word): 창의적인 미술교사(Creative Art Teacher), 교실연구(Classroom Research), 미술 중심 연구(Art-Based Research), 미술중심 교실연구(Art-Based Classroom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I. 서론

1948년 이래 초중고 교육과정 속에서 창의성은 언제나 중요한 교육적 가치로 여겨져 왔다 (문용린, 2011: 46). 최근에 와서는 창의교육은 시대적 요구로 창의적 인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길러내고, 창의성 발휘를 돕는가는 국가발전의 일환으로 여겨질

* 본 학회 회원, 춘천교육대학교, 한양대학교 강사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창의성 실체에 대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고 창의성 교육 담당할 전문적인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문용린, 2011: 46). 특히 학생들의 창의성 신장에 대한 교육적 필요성은 점점 강조되어 가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교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창의성 교육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너무 미비한 상태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미술활동은 창의성 계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 왔다. 이는 미술과의 특성 자체가 창의적 표현을 중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실증적 연구와 신경 과학 연구 등이 미술활동이 창의성 계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기 때문이다(이화식·황은선, 2009: 511). 미술활동이 아동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이를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이 발표된 이후부터 아동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수업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다. 하지만 정작 미술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미술교사가 어떻게 창의적인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해야 하는 지, 미술교사의 창의성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자극되고 개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미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체론적 특성 즉, 예술작가로서의 작업능력과 교사로서의 학생 이해 능력, 수업조직 능력, 교실 경영 능력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전자의 경우는 많은 미술교사들이 스스로 작업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능력을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 대부분의 미술교사들은 어떻게 자기 개발을 해야 할 지 힘들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Hatfield,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사가 효과적으로 후자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교실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하지만 동시에 미술교사에게 교실 연구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연구방법이 미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 효과적인가 의문을 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술교사들이 창의적 수업운영을 위해 활발한 교실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근 미술교육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술중심 연구(Arts-Based Research)’의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 캔사스 한 주립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예비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 운영했던 사례를 통해 미술중심 연구 방법이 미술교사에게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 그 의미와 기능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미술수업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 개발이라는 미술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술교사의 창의적 자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미술교사의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미술교사에 의한 현장

연구 방법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 사례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술교사의 예술가로서의 창의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창의적 미술교육 능력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미술교사를 위한 대안적 현장 연구 방법의 개발, 실행, 결과를 심도 있게 탐구해 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미술 교사의 교실연구

“우리는 교육자이다, 또한 우리는 예술가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둘 모두가 되기 위해 힘겹게 노력한다”(Hatfield, et al., 2006: 42). 교사와 예술가 사이 아니 교사와 예술가라는 두 역할을 동시해 수행해야 하는 미술교사의 자기 정체성 고민은 꽤 오랫동안 논의 되어 온 문제이다. 헛필드와 동료들의 연구에 참여한 현직 미술교사들은 교사와 예술가로서의 미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미술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는 미술 실기와 교육이론들을 적절히 다루는 교육과정을 마련했지만, 실상 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졸업한 대부분의 미술교사들은 어정쩡한 두 마리 토끼를 쫓는 것 같은 교육과정 이 오히려 교사, 예술가 그 어느 쪽 전문성도 충분히 길러 주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미술교사로서 자신들이 양쪽 분야 모두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미대 교육과정에 비해 부족한 실기 수업을 이수하기 때문에 겪는 미술가로서의 소양과 자질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자신감 부족과 최소한 이수해야 하는 교과교육론과 교육이론 수업들은 교육자로서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자신감을 주기엔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 미술교사들은 미술 작업 활동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자신을 전문적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것이 미술교사로서 수업을 자신 있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 준다고 믿고 있었고, 개인적인 미술창작활동을 수업 외 시간에 하고 있었다.

헛필드와 동료들의 연구에서처럼 많은 미술교사들은 창의적인 미술교사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창의적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실제로 많은 미술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 느꼈던 창의적 교육자로서, 즉 창의적 미술교육 능력을 지닌 미술교사로서의 전문성 부족은 어떻게 채워야 할 지 방법을 찾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미경과 안금희는 현장 미술교사들이 미술수업을 통해 창의성 계발을 요구받을 때마다 자신들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 지 모르겠다는 당혹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007: 557-558). 그렇기 때문에 종종 미술교사들은 교육과정에 공시된 창의성 계발이라는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지향하고자 하지만 실제 미술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창작물은 모방에 그치게 만드는 수업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추미경과 안금희는 지금까지 교사들에게 제공되었던 미술 교과 교육과정이나 미술 교육이론들이 보편성을 지향하고 개별의 수업들이 지니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 개별의 미술 수업에서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 상황들을 조절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추미경·안금희, 2007: 545).

1950년 미술심리학협회 회장이었던 길포드(Guilford)가 창의성에 관한 기초연설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창의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화식·황은선, 2009: 487).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를 살펴보면 창의력은 주로 개인적 차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지며 새로운 것을 생성해내는 발산적 사고를 해내는 것 그리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수업과 교실환경을 준비하려는 교사는 스스로도 자신의 수업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고,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인지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를 계속 할 수 있어야 창의적인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자로서 전문성에 부족함을 느끼는 미술교사가 전문성을 스스로 기르고, 창의적인 수업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탐구하는 교실연구가 하나의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연구는 195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개념으로 자신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교수와 학습에 관해 교사 스스로가 지속적이고 축적되는 지적 탐구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Cross & Steadman, 1996; Feldman & Minstrell, 2000). 리차드슨(Richardson, 1994)은 교실현장 연구에는 두 가지 형태의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연구자들이 현장에 들어와 탐구를 하는 것이고 하나는 현장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하는 연구라고 하였다. 그는 후자가 전자에 비해 수업 개선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2. 미술교사의 미술중심 연구

교실연구가 미술교사에게도 창의적인 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할 대안이 될 수 있다면 과연 전문적으로 연구법을 배우지 않은 미술 교사가 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스스로 그 답을 찾기 위해 탐구를 시작할 수 있을까? 아마 탐구, 탐색, 연구, 가정, 데이터, 분석과 해석, 결론이라는 단어들은 미술교사를 포함한 많은 교사들에게 가까이 하기 참 힘든 말일 수도 있다. “the Reflective Educator’s Guide to Classroom Research”(2009)의 저자, 지니 탐슨-그루브(Gene Thompson-Grove)는 자신도 탐구라고 볼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거리가 먼 현장 교사였다고 회고하고, 이제 체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문들을 탐구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자신의 사고를 돕는 의문을 갖는 것, 그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것을 하지 않는 자신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신을 더 나은 교육자(better educator)라고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 수 있게 된 것처럼 더 많은 교사들에게 교실연구를 시도해 보라고 제안하였다.

최근 학생들의 적극적인 학습(교사에 의해 주도되는 수동적인 학습이 아니라)은 학생의 비판적 능력,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교사의 연구자로서의 학문적 능력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학생의 흥미 그리고 의문에 의해 주도되는 적극적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탐구자로서의 자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Cross & Steadman, 1996: 2). 즉, 적극적인 학습을 위해서 학생은 자신의 학습에 대한 의문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과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때문에 이를 시기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교수활동은 학생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을 계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교사는 자신의 교실을 ‘학습과 교수’를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한 실험실로 보고, 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관찰된 내용과 수집된 정보들을 다른 동료교사들과 재검토하고 토론하기도 하며, 관련 참고문헌들을 찾아보는 일 등을 시도할 수 있는데 이를 교실연구라고 할 수 있다.

크로스와 스테드맨은 교실연구를 단순히 이해하자면 현장 교사가 자기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수와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 탐구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교실 연구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설명한다. 즉, 교실연구를 통해 교사는 어떻

게 더욱 효과적인 교사가 될 것인가 배우게 되고, 학생은 어떻게 더 효과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교사들, 특히 미술교사들이 교실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가능한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실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은 연구라는 활동을 자신과 먼 일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시각언어를 다루는 미술교사들에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탐구과제를 실행으로 옮기는 일, 정보를 모으고, 그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고, 타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자신의 탐구의 질을 평가내리는 일은 더욱 두렵고 힘든 일일 수 있다. 이들의 두려움은 연구가 과학적 방법과 언어(scientific methods and words)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술교사들이 매일 사용하고 있으며 자신감을 보이는 예술적 방법과 시각언어를 사용하는 연구방법은 없는 것일까?

설리반(Sullivan, 2005)은 대개 많은 연구들이 문자언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유는 좀 더 엄격하고 체계적인 탐구가 가능하다는 믿음 때문인데, 문자언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탐구방법 뿐만 아니라 미술활동(art practice, art-making) 역시 지식을 구성하고 인간의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탐구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의도적인 연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항상 의도적이지 않은 연구 결과보다 가치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미술을 이용한 연구는 의도적인 그리고 의도되지 않는 결과 둘 모두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미술표현활동을 탐구(art practice as research or art-making as inquiry)활동으로 보는 논의들이 최근에 미술 교육 학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Barone, 2001; Eisner, 2006; Keys & Guyas, 2006; O'Donoghue, 2009; Rolling, 2010; Sullivan, 2005, 2006).

미술중심 연구는 1970년대 엘리엇 아이스너(Elliot Eisner)가 스탠포드대학에서 교육 연구 내의 예술의 역할을 상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Barone, 2001; Eisner, 2006). 아이스너는 미술중심 연구가 과학적 연구들이 탐구하기 힘든 혹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의 탐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예술 중심 교육연구(arts-based educational research)의 장점은 교육 상황과 경험을 묘사하고 드러내는데 과학적 방법이 사용할 수 없는 미적 본질(aesthetic qualities)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술을 언어-중심 연구(linguistic-based research)의 실용적 대안으로서 고려하는 이유들은 미술 작품의 생산을 사회적 과정으로 보려는 미술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철

학적 변화를 전제로 한다(O'Donoghue, 2009: 353). 설리번(2005)은 현대작가들은 삶의 중요한 주제들을 작품에 다루기 때문에 그들의 미술활동을 연구 활동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많은 현대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판적 반성과 의미 만들기를 위한 목적을 위해 어떻게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작업되고 시공간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지 작품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미술 중심 연구는 교사들에게 앎을 위한 과정이자 자신이 알게 된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타인들이 이런 시각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통해 새로운 앎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술 중심 교육연구방법은 미술교사들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 경험을 자신의 미술 표현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예술가로서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적인 연구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소개될 사례는 예비미술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나가 교실연구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품 활동과 연구 활동을 함께 하는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교실 연구법’을 지도한 사례이다. 이 사례는 미술교사가 자신의 수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육적 이슈들을 작품 활동의 주제로 사용함으로써 미술교사가 교실 연구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극복하고 교실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

Ⅲ. 창의적인 미술교사를 위한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 사례

1. 프로젝트 개발 배경

2004년 가을 나는 미국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한 주립대에서 예비미술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 강의는 한국의 미술교육과 교과교육학 심화 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술교과교육론 정도의 강의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었다. 이 강의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말과제로 예비 미술교사들에게 미술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미술 시간이나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미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현장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었다. 형식은 미술교육 현장을 방문하여 수업을 관찰하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었다. 나는 강의 첫 학기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반응을 관찰하고 제출한 과제들을 검사하면서 이 현장 연구 과

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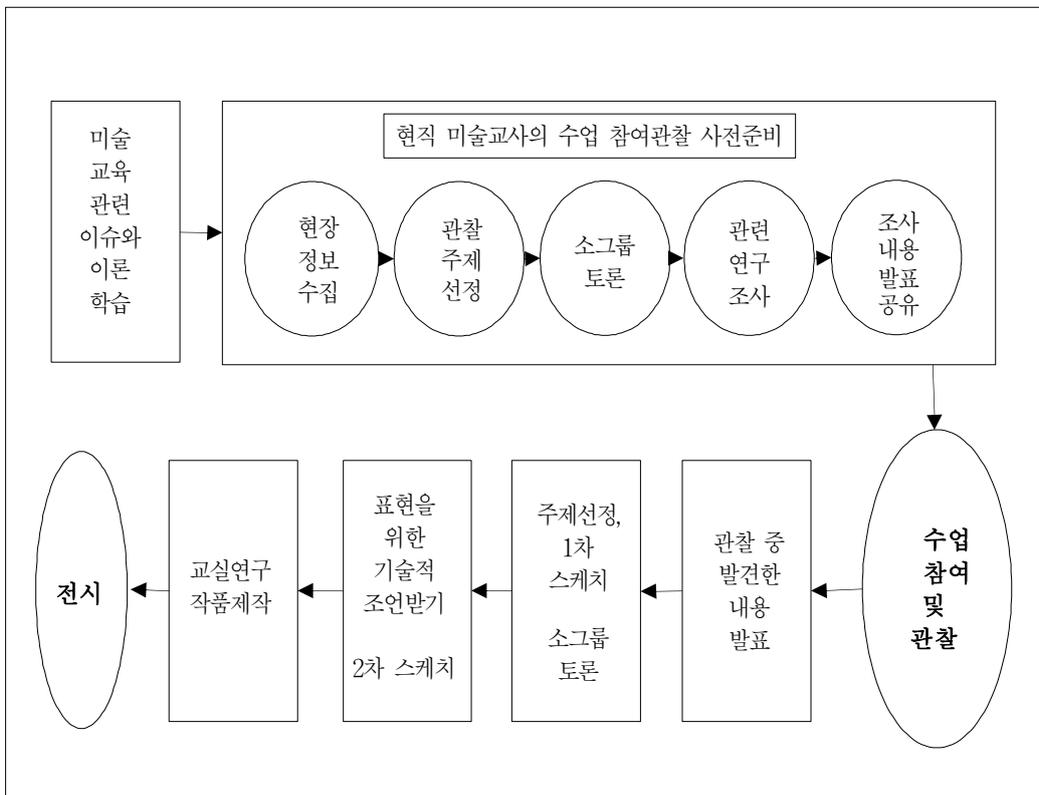
과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겠지만, 미술교육을 전공하는 학부 학생들의 반응은 내게 과제의 형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하였다. 이들은 학생들의 개인차에 따라 조금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미술 표현을 통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들에게 교육이론과 관련한 수업들에서는 늘 문자언어를 매개로 학습하고, 탐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은 나에게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현장연구 과제를 보고서 형식이 아닌 미술 작품으로 바꾸어보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을 갖게 했고, 두 번째 학기부터 이 과제는 보고서 형식이 아닌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인 현장연구 과제에 대한 두 번째 의문점은 학생들이 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체계적으로 지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단순히 관찰보고서 형태의 학부 학생들의 간단한 현장연구 과제였지만, 이도 분명히 탐구 활동이었다. 연구법을 배우고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내게도 아직도 무언가를 연구하고 글로 그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처럼, 물론 간단한 현장 연구였지만 학부 학생들이 현장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은 실제로는 많은 준비와 연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하는 실정이었다. 학생들이 이 과제를 통해 미술교육에 대해 더 많은 이해와 배움을 얻을 수 있고, 과제 수행이 수업내용과 잘 연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과정과 수행과정 중에 학생들이 더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나는 이전에 이루어지던 현장연구 과제를 ‘미술중심 교육현장연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로 좀 더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도록 수정보완한 뒤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 미술창작활동과 미술-중심 교육연구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2005년 가을학기부터 2010년도 봄 학기까지 수정과 보완을 거쳐 미국 내 두 개의 주립대학에서 3회 실시되었다.

2. 프로젝트 진행과정

본 연구에서 소개될 사례는 미국 캔사스주에 위치한 한 주립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2010년 1학기에 ‘중등미술교육’이란 강의를 수강한 예비미술교사들 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세 번째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이다. 이전에 실시되었던 두 번의 프로젝트는 사실 많은 부족함을 지니고 있어 예비프로젝트의 성격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두 프로젝트를 수정 보완하여 실시하였던 세 번째 프로젝트를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살펴보았다. 3회 실시된 각각의 프로젝트들은 서로 다른 학기동안 다른 학생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맨 마지막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8명의 예비미술교사들의 사례만을 이 논문에서 소개하였다. 8명의 예비교사들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미술교육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고민해 봐야할 미술교육 분야의 이슈들을 교실 내에서 토론한 뒤, 현장미술 교사의 미술 수업을 참여, 참관하고 그 결과 얻은 지식과 의문점들을 발전시켜 시각화시키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단계와 단계별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 진행 과정

1) 미술교육 관련 이슈와 이론 학습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는 학기의 마지막 활동이었으나 한 학기의 모든 수업이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강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비 미술교사들이 앞으로 참여관찰을 하게 될 현장의 실제 미술 수업에서 보다 교육

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수집해내고, 비판적이면서도 발전적인 통찰력과 문제의식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학기의 반은 강의와 토론을 통해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여러 이론적 배경지식을 학습하였다.

2) 현직 미술교사의 수업 참여관찰 사전 준비

예비 미술 교사에게 미술활동(art-making)을 교실연구법으로 사용하여 창의적인 미술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된 이 프로젝트는 교사가 자기 수업을 연구한다는 현장교실연구의 본래 목적과 형식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비 교사들은 현직 미술 교사들의 수업에 보조미술교사로서 동시에 관찰자로서 수업을 탐구하였다. 따라서 현장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준비활동을 수행하였다.

(1) 참여 관찰할 미술수업에 대한 조사

두 번의 짧은 참여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을 연구해야 하는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가능한 학교에 대한, 미술교사에 대한, 학생에 대한, 준비된 미술 수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전 지식을 준비하였다.

(2) 관찰 주제 선택

짧은 수업이지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실에서는 참으로 많은 상황들이 이루어진다. 이 많은 상황들을 다 관찰하기란 불가능하며, 그렇게 분산된 시선으로 수업을 관찰하면 관찰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상황에서 실제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한 채 수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고 싶은 주제를 사전에 정하고 현장 미술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심 주제를 선택하였다<표 1>.

(3) 관찰 주제에 대한 소그룹 토론

예비교사들은 관찰 주제를 선택한 뒤 소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관심 있게 보고 싶은 분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았다. 이 소그룹 토론에서는 자신의 관찰 주제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받아 미처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관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 주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허락하면서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표 1> 예비 미술 교사들이 선택한 관찰 주제 예

영역	관찰 주제
미술수업 내 상호작용 형태와 기능	친구와 일대일 상호작용 친구들과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학생과 미술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집단과 미술교사와의 상호작용
타인의 영향	아동의 미술표현, 미술발달에의 친구의 영향 아동의 미술표현, 미술발달에의 미술교사의 영향
성별의 차이	남학생 그룹과 여학생 그룹의 미술표현과 미술발달의 차이 다른 성별 집단의 상호작용의 형태와 기능의 차이
미술표현 발달	발달론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사회문화적 영향)
미술수업 분석	미술수업 활동에의 아동의 흥미와 참여도 아동이 활동의 수업 활동 참여 동기화 정도 미술교사의 수업계획과 전략 미술교사의 평가(직접적, 간접적) 미술교사의 수업과 학생 관리 전략 미술교실 환경 구성

(4) 관찰 주제에 대한 이론 조사

소그룹 토론 후에는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의 관찰주제와 관련한 말 그대로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이론 검토 시간을 갖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관찰할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의미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혹은 도서관 자료를 이용해서 간단한 배경 정보 확인을 하도록 했다. 수업 시간에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예비 미술 교사도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예비미술교사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관련된 경험들을 나누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다 심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관찰 시 주의할 점 등을 논의하고 예비 미술 교사들은 사전 준비 계획을 마무리 했다.

3) 수업 참여 및 관찰

예비 미술 교사들은 미술 수업이 이루어질 교실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미술교사로 부터 수업에 대한 설명, 주의할 점 등을 이야기 듣고, 미술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수업 전 미술교사와 학생들에게 방해되지 않는 공간에 자리를 잡고 관

찰한 내용을 기록할 준비를 하였다. 수업이 시작되고, 학생들이 표현활동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예비교사들은 미술교사의 수업을 돕기도 하고, 관찰을 더 가까이해야 할 필요 있으며 학생에게 더 다가가거나 주변을 살피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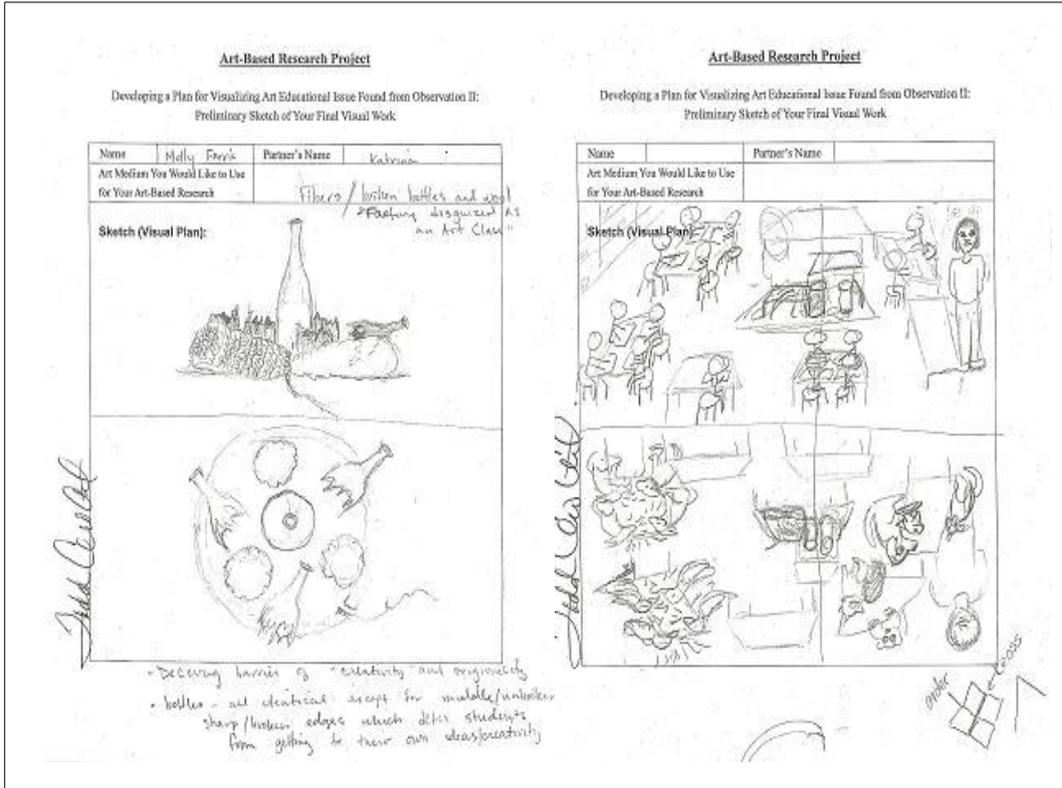
2번의 수업 참여관찰 기회 중에 첫째 날에는 관찰 주제로 잡았던 상황을 중심으로 관찰하되, 예상하지 않았던 더 흥미로운 상황을 발견하거나 준비했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제로 변경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참여관찰 후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았던 상황을 집중적으로 더 관찰하도록 하였다.

4) 관찰 결과 발표 및 의미 해석

두 번의 참여관찰이 끝나면, 각 예비교사들은 각자 자신들이 기록한 관찰일지를 다시 정리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관찰했던 상황을 떠올려보고 그 상황의 교육적 의미들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도록 했다. 그 후 다시 강의가 있는 날 그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무엇을 발견하였는지, 무엇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는지, 어떤 점이 의문이 남는 지 등을 다른 학생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 주제 선정 및 1차 스케치

참여관찰을 통해 새로이 발견한 사실이나, 기존 이론을 확인시켜주는 증거 혹은 문제의식들 중에서 예비교사들은 그 의미의 중요성을 시각화시켜 표현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미술교육과 관련된 주제를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어떤 표현 형식과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1차 스케치를 하였다<그림 2>. 예비 미술교사들은 이 1차 스케치를 가지고 2인 1조로 서로의 아이디어를 듣고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보완하고, 다시 전체가 모여 한 명씩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와 그 이유, 그리고 그 주제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표현계획에 대한 발표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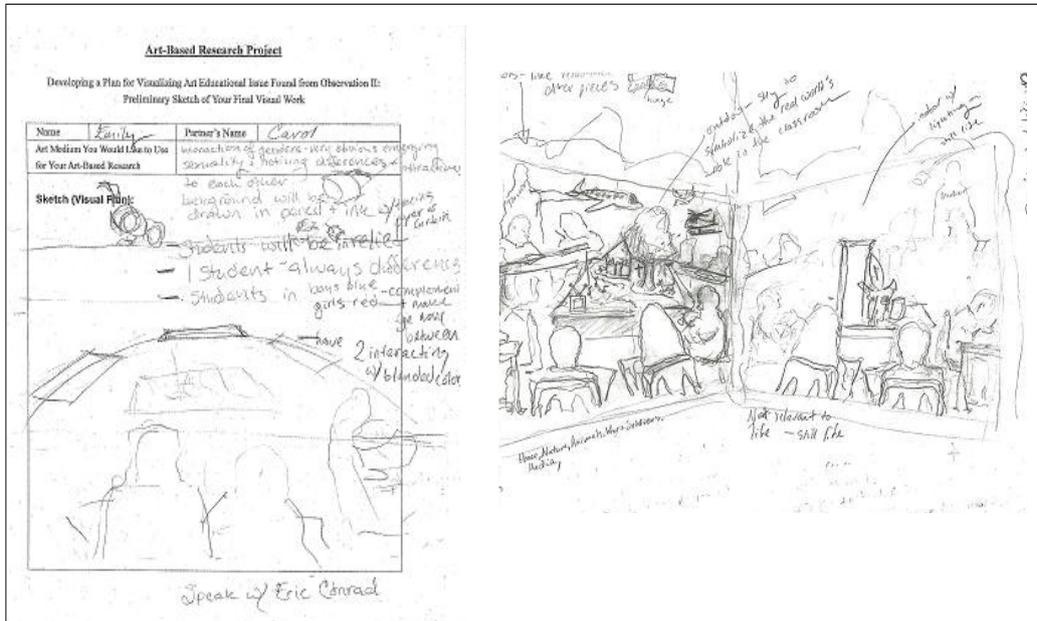
<그림 2> 예비미술교사들의 1차 스케치

6) 기술적 조언 및 2차 스케치

아직 예술가로서도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교육받고 있는 단계에 있는 예비미술교사들이기 때문에 좀 더 경험 있는 사람과 자신의 작업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가 있다면 주제를 더 효과적으로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기술적 성장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에 '표현을 위한 기술적 조언받기'라는 단계를 포함시켰다. 2009년 프로젝트를 끝내고 평가하면서 이 단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즉각 교수 회의에서 스튜디오 실기 수업을 맡고 있는 다른 교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든 실기 교수들이 예비미술교사와 의견 나누기에 참여해 주겠다는 약속을 흔쾌히 해주었고, 2010년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를 실시할 때는 단과대 수준의 프로젝트로 여겨질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

각 예비교사들은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방법과 관련된 기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스튜디오 지도 교수들과 약속을 잡고,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어떤 학생은 개인적 교습을 몇 차례 따로 받는 등 이전에 모르던 새로운 기법을 면담했던 실기 교수로부터 직접 전수받기도 하였다<그림 3>.



<그림 3> Kelly의 1차(왼쪽 그림), 2차(오른쪽 그림) 스케치

7) 교실연구 결과물로써 미술작품 제작

2차 스케치까지 완성된 학생들은 교실연구로서 작품 만들기에 들어갔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미술교육과 관련된 의미 있는 주제들 미술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사실에 매우 큰 흥미를 보였고, 즐겁게 작업을 하였다. 몇 명의 학생 작품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그림 4>.



<그림 4> 예비 미술 교사들의 미술중심 교실연구 프로젝트 작품들

(1) 켈리-창의성 개발과 관련된 주제로 작품(그림 4의 왼쪽 위)

켈리는 수업을 참관하면서 전통적인 뗏쟁 수업이 기계적으로 실시되어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창의성은 개발되기 힘든 교육현장을 비판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였다. 안이 잘 보이지 않는 병속에는 갖가지 다른 종류의 실들이 들어 있는데, 이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창의성을 의미한다. 병을 통해서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미술교사들이 그 다양성을 무시한 채, 그럴듯하게 보일만한 미술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한다. 병 표현에 여러 재료로 그 그럴듯함이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런 포장된 장식품이 병 속을 들여다보기 더욱 힘들게 만든다. 병 속의 실들은 빠져나오려 하지만 입구가 너무 좁아 그것이 힘들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또한 캘리는 이 실들이 빠져 나오더라도 병 주면의 철조망이 있어 또 다른 위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표현하려고 하였다.

(2) 제시-미술교사의 일률적인 피드백 방법에 대한 작품(그림 4의 왼쪽 아래)

제시는 미술교사가 학생들이 겪고 있는 각기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슷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있는 것을 표현했다. 제시의 작품에는 미술교사로 여겨지는 인물이 표현되어 있는데 얼굴은 표정 없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학생들은 알 수 없다. 이는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술교사가 하는 말은 손 글씨가 아닌 잡지에서 오린 단어들을 조합해서 표현했는데 이것은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아동들과 대화하는 미술교사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미술교사 앞에는 3개의 카드가 놓여 있는데, 이 카드를 열면 음성 녹음된 교사의 피드백이 재생되어 나온다. 한 장은 미술사, 다른 한 장은 미술표현,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감상이라고 쓰여 있으며 언제든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카드를 열라는 지시가 적혀 있다. 이 작품은 설치작품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관람객들이 자신들의 의문점을 가지고, 혹은 어려움을 해결할 조언을 얻기 위해 관련된 카드를 열지만 그들이 얻는 대답은 모두 동일하였다.

(3) 에밀리-아동의 삶과 연관되는 미술활동의 필요성(오른쪽 제일 위)

에밀리가 관찰한 미술수업은 교사가 준비해 놓은 물건들을 덧생하는 수업이었다. 양동이, 동물의 머리뼈, 병과 컵 그리고 구와 정육면체 등이 놓여 있었는데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물건들은 아니었다. 에밀리는 이것들을 그리는 학생들이 '왜 이런 것을 그리고 있어야하지?' 하는 듯한 지겨운 표정을 발견했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좀 더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들을 그리게 했으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미술활동에 참여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는 미술표현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고민을 담아 표현하였다.

(4) 마크-미술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대화주제와 미술작품에 끼치는 영향 (그

림 4의 오른쪽 중간)

마크는 학생들이 작업하는 동안 굉장히 근접하여 학생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는지 관찰하였다. 대부분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미술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단 두 명만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서로 조언을 주기도 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마크는 미술활동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두 학생들의 작품이 다른 학생들의 작품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고 미술교사가 학생들이 좀 더 수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함을 자신이 그 당시 가장 즐겁게 배우고 있던 사진 기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5) 수잔-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그림 4의 오른쪽 아래)

수잔은 참여 관찰했던 교실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이웃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수잔은 평소 이 소년이 집에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 날 관찰한 이 소년은 미술시간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고 아무 것도 그리지 않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던 수잔은 소년에게 다가가 왜 그림을 그리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 소년은 “내가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하지 않아요!”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미술 수업을 듣기 전에는 그리고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이 중학교 미술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부터 오히려 미술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수잔은 소년이 생각하는 미술시간에 대한 생각을 상황을 재연하는 만화를 통해 사실적으로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8) 전시회

예비 미술교사들의 미술중심 교실연구의 결과물들은 단과대 건물 내 중앙 홀에서 전시되었다<그림 5>.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회는 마치 다른 연구들이 논문으로 학회지에 출판되고 소개되는 것과 같이 교실연구의 성과들이 사람들과 공유되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었다. 작품을 만든 예비 미술 교사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러온 사람들에게 작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술교육과 관련된 자신들이 깨닫게 된 혹은 문제의식을 갖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토론했다. 관람자들은 이 전시회가 주제가 있는 작품전시회라는 것을 알고 어떤 이야기들이 작품으로 표현되고 있는 지 읽어내기 위해 더 관심을 보였고 예비미술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거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5> 미술중심 교육연구 전시회

IV. 연구 결과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술수업을 통한 아동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방법을 논하기 전에 사실은 먼저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창의적인 미술교사를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로서의 창의적 자질을 기르는 것과 함께 교육자로서 자신의 수업을 창의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고 반성하고 발전 방향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창의적 자세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때 그 미술교사는 실체가 분명치 않은 언제 발휘될지 모르는 아동의 창의성을 시기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자극하고 개발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나는 미술작업을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보고, 그 가치와 기능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예술중심 연구(arts-based research)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작품창작활동과 교실 연구가 따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미술교사의 대안적 교실연구(classroom research) 방법을 개발하였다. 아직은 미술교사가 아닌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 방법의 가능성이 실험되어 왔지만, 사례로 소개된 프로젝트의 결과는 실제로 예비미술교사들 뿐만 아니라 미술교사들에게도 이 미술 중심의 교실연구방법이 창의적인 미술교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기능을 보여주었다.

첫째, 일단 예비 미술교사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높은 흥미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상대적으로 자신 있는 미술표현을 통해 교육문제들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프로젝트 초반에는 막연해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소그룹 활동이 시작되고 참여관찰 후 자신들이 무언가 발견했다는 놀라움과 그 발견된 내용과 문제의식들이 작품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학기말이 종료된 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회까지 끝까지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관찰이 시작되기 전부터 관찰의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결정하는데도 미술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관심들을 보였는데,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각 단계 단계마다 매우 통찰력있게 교육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대안을 찾는 등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교육에 대한 고민 수준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미술활동을 통한 연구법을 경험함으로써 앞으로 자신들이 현장에 교사로 나가게 되었을 때 교실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표현하였다. 전시회 전 예비교사들은 전시회에 상영할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게 되었는지 빈 강의실에 비디오카메라 한 대를 설치하고 한 명씩 들어가 독백하듯 말한 내용을 녹화했었다. 이 영상에서 밝힌 예비미술교사들의 소감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가 연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사용하면 자기 스스로 전문성 있는 미술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넷째, 이 프로젝트는 알고 있었던 지식은 더 깊어지고, 수업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도 스스로 찾아내 지식을 확장시키도록 도움을 주었다. 짧은 시간동안 깊이 있는 이론 소개나 논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예비미술교사들은 미술 수업 참여관찰을 통해 미술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스스로 그 상황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존 지식을 확인하고 확장시키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까지 미술중심 연구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현장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은 적극적으로 탐구되지 않았다. 논문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이 이론적인 논의가 현장 미술교사들에게 교실연구법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미술 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현장 미술교사들이 창의적인 미술교사로서 발전하기 위해 미술중심 교실연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참고문헌】

- 문용린(2011). **창의성 교육의 도전과 과제**, 2011 서울국제 창의예술교육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서울문화재단, pp. 45-50.
- 추미경·안금희(2007). **초등 미술 수업 딜레마에 관한 질적 연구**, 조형교육, 29, pp. 545-584.
- 이화식·황은선(2009). **창의성 계발 기법과 창의적 문제 해결법과의 관계: 미술과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33, pp. 485-514.
- Barone, T.(2001). Science, art, and the predispositions of educational researchers. *Educational Researcher*, 30(7), pp. 24-28.
- Cross, K. P. & Steadman, M.H.(1996). *Classroom research: Implementing the scholarship of teach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Eisner, E.(2006). Does arts-based research have a future? *Studies in Art Education*, 48(1), pp. 9-18.
- Feldman, A. & Minstrell, J.(2000). Action research as a research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of science. In A. Kelly & R. Lesh (Eds.), *Handbook of research design in mathematics and science education* (pp. 429-45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hompson-Grove, G.(2009). *The reflective educator's guide to classroom research: Learning to teach and teaching to learn through practitioner inquiry*.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Hatfield, C., Montana, V. & Deffenbaugh, C.(2006). Artist/Artdeducator: Making sense of identity issues. *Art Education*, 59(3), pp. 42-47.
- Keys, K. & Guyas, A. S.(2006). What we can't say: Ain't we artists? *Studies in Art Education*, 48(1), pp. 123-128.
- O'Donoghue, D.(2009). Are we asking the wrong questions in arts-based research? *Studies in Art Education*, 50(4), pp. 352-368.
- Richardson, V. (1994). Conducting Research on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23(5), pp. 5-10.
- Rolling, J. H.(2010). A paradigm analysis of arts-based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education. *Studies in Art Education*, 51(2), pp. 102-114.
- Sullivan, G.(2005). *Art practice as research: Inquiry in the visual arts*. Thousand Oaks, CA: Sage.

Sullivan, G.(2006). Research acts in art practice. *Studies in Art Education*, 48(1), pp. 19-35.

논문접수 2011년 10월 15일	논문심사 2011년 10월 25일	게재승인 2011년 11월 11일
--------------------	--------------------	--------------------

ABSTRACT

Creative Art Teachers' Classroom Research Method for Their Creative Art Lesson: Art-Based Classroom Research

Minam Kim

One of purposes of general education is to educate children and make them creative. Recently, it seems that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is more emphasized in general education. Under this circumstance, the theme of creativity is sweeping through the field of art education. That is to say, now it is considered that this theme, creativity, is essentially central to the field of art education. Many people in and even out of the field of art education believe that art would be an effective subject to develop children's creativity. Therefore, developing effective art lessons for children's creativity has been an important issue in art education. However, although we have paid great attention to creative children, we have not considered who could be a creative art teacher who prepare creative art lesson for children. In order to help children develop their creativity, we must think how art teachers can be creative and how they can prepare creative art lessons effectively.

Art teachers has been understood as an artist teacher. It means that they have dual identities such as an artist and a teacher. Many teachers, ironically, try to be a good artist in order to be a professional and creative art teacher. However, they should be professional and creative in both areas. How can they develop their dual identities effectively.

This study introduced 8 student art teachers' creative classroom research using an art-based research method and explained how this project was initiated, what was the process of the project and what participants learned from it. Through participating in this project, student art teachers learned how to incorporate their interest in art-making into their classroom research and it was identified that they became more competent in conducting research.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if the discourse on the possibilities of art practice as research among only scholars is introduced to practitioners, art teachers, it would be helpful for art teachers prepare more effective art lesson for their children's creativity.